

AI 확산 속 고령화 심화… 보험설계사, 지속 가능성 시험대

설계사 평균연령 상승세 지속
중장년·N잡러 중심 구조 고착
복잡해지는 상품환경 대응 부담
AI 활용 전문직 전환 요구 커져

보험설계사 직업이 고령화와 젊은층 기피, 인공지능(AI) 확산 등과 맞물려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새로운 인력 구조와 기술 환경에 맞춰 설계사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생명 보험 설계사 평균 연령은 2001년 41세에서 2022년 51.4세로 약 10세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평균 연령이 36.5세에서 43.8세로 7.3세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설계사 집단의 고령화는 노동시장 전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신규 진입자 구성에서도 세대교체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다. 보험설계사 시험



보험설계사의 평균 연령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설계사 이미지.

응시자 가운데 29세 이하는 2010년 17.4%에서 2024년 12.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40~59세는 44.9%→55.8%, 60세 이상은 1.3%→9.7%로 크게 뛰었다. 과거에는 20대가 인구 비중보다 더 많이 설계사 시험에 몰렸지만 이제는 인구 비중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에 그친다.

청년층은 소득의 변동성이 크고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이유로 설계사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 반면 직장 경력을 쌓은 중·장년층과 퇴직 이후 재취업을 찾는 고령층,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 형태로 보험을 파는 N잡러가 주요 신규 유입층이 되고 있다.

고용 형태의 특수성은 직업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보험설계사는 근로계약을 맺는 직원이 아니라 위촉계약을 기반으로 한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 지위를 갖는다. 전속 설계사의 경우 회사 조직과 관리자 체계 안에서 활동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 사업자로 취급되는 이중적 위치다.

고령화와 특수고용 구조는 직업의 질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과제를 남긴다. 고령 설계사의 경우 신규 고객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료기술·제도·상품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복잡한 상품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최근 확산되는 AI 채널은 위기이자 기회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챗봇과 자동화 상담 시스템을 통해 기본 문의 응대와 계약 설명을 처리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상품 추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과거 ‘보험 아줌마’로 불리던 시기를 지나 대졸 전문직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AI 보조형 전문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장년층에게는 경력을 살리면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평생직업이자, 다른 직업을 가진 N잡러에게는 제도권 안에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부업이 될 수 있다는 것.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설계사는 소비자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전문 직업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어 장래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문직으로 거듭나고 수수료가 분급돼 소득도 안정화되면서 보험설계사 직업의 지속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상호금융 부실화 예방…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

적자조합 속출… 건전성 규제 강화
적립 확대 요구에 상호금융 부담감
유예 요청에도 수용 가능성 불투명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부실화 우려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상호금융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30%로 상향된다. 이번 규제는 지난 2023년 발표된 것으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단계적 적용 및 한시 유예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120%, 오는 연말부터는 130%로 적용된다.

실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지난 6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5.70%로, 지난해 대비 1.16%포인트(p)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 신탁은 상반기 연체율 8.36%, 수협은 7.82%, 농협은 4.70% 수준이다.



상호금융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아진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전체 연체율을 4%대로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자 조합이 속출하면서 건전성 제

고에 나선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부실을 줄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14일 농협·수협·신탁·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기관 대표들은 대손충당금 규제 유예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건의문의 핵심은 대손충당금 상향 주기를 반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전환하고, 상향 폭도 매년 10%포인트(p)씩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로 예정된 130% 상향 시점도 내년으로 미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추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조합 전체의 적자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다시 농업·농촌 지역 환원 축소로 이어지면서 상호금융의 본래 역할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상호금융권의 건의는 두

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이미 2023년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상향을 발표했을 때 적립률 적용 시점을 늦춰달라고 한 차례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이를 수용해 기존 110%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했고, 현재 유예 기간이 끝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30% 적용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이번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지방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한 부실대출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돼 온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다시 조정하기는 힘든 상황일 것”이라며 “유예 요청도 이미 한 차례 수용됐기 때문에 이번 요청이 다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지식산업센터 경매 쏟아진다

은행의 잔금대출 중단 여파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지식산업센터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회사인 지자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법원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는 2593건으로 이미 지난해(1564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다.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573건이던 지식산업센터 경매건수가 최근 2년간 3~4배 많아진 셈이다.

업계는 지난해 중반부터 입주예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은행의 잔금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전면 중단된 게 경매급증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법원경매 건수 올해만 2593건
잔금대출 막히며 이자 못갚아
2년간 3~4배 늘어 ‘사상 최대’

SC제일은행, 고액자산가 특화센터 개점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 센터 개점
1호 고객으로 박세리 감독 초청

SC제일은행은 20일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검증된 글로벌 프라이빗 बैं킹 모델을 적용한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Private Banking) 센터’를 개설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문을 연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은 예치 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고객을 위한 대규모 프라이빗 बैं킹 센터다. SC그룹의 주요 시장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중국에서 성공한 글로벌 자산관리 센터 모델을 한국에 처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 센터는 총 6개 층으로 구성됐다. 고급라운지와 리셉션

데스크, 대여금고와 함께 11개의 고객 상담 전용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해 22명의 전담 직원(RM)과 4명의 투자, 외환, 보험 전문가 그룹이 상주한다. 자산관리 전문 RM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자산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 경영대학원인 INSEAD와 SC그룹의 연계 프로그램 ‘SC-INSEAD 웰렛 아카데미(Wealth Academy)’를 수료한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 센터에서 열린 오프닝 행사에는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 센터 1호 고객으로 박세리 감독이 초청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을 비롯한 SC제일은행 경영진과 사외이사, 주디 슈(Judy Hsu) SC그룹 소매금융 및 범중화권북아시아(GC



SC제일은행 압구정 프라이빗 बैं킹 센터 오프닝 행사에서 주디 슈(Judy Hsu) SC그룹 소매금융 및 범중화권북아시아(GCNA) CEO(왼쪽 첫번째)가 이광희 SC제일은행장(오른쪽 첫번째), 1호 고객인 박세리 감독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SC제일은행

NA) CEO가 참석해 주요 초청 고객들과 함께 리본 커팅 및 센터 투어를 진행했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압구정 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등과 같이 자산가 고객이 집중된 도시에도 순차적으로 프라이빗 बैं킹 센

터 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은 “소매금융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은행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한 차원 높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특히 분양 물량 정점이던 2021~2022년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대출이 막히면서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건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식산업센터는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비율로 납부하는 구조다. 중도금은 집대대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입주가 시작되면 잔금은 계약자 담보대출로 전환된다.

그런데 금융권이 분양가의 70~80% 수준에서 해오던 잔금대출을 급격히 줄이면서 계약자들 가운데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은 통상 대출이자를 3회 연체하면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절차에 나서게 된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전국 1547곳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수도권에 77%(1191개)가 몰려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